한국의 보물, 해인〈51〉

나. 포산스님과 해인

(지난호에 이어)

김광영 보살이 해인을 찾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개태사에서 조국의 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던 김 보살은 어느 날 천왕(天王)으로부터 해인(海印)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천왕께서 알려주는 대로 김 보살은 전북 익산군에 거주하는 어떤 할머니를 찾아가 대뜸 "해인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했다. 나름대로 정성을 올리고 있던 그 할머니는 "해인이 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시치미를 뗐다. 그래서 김 보살이 천왕께 "해인이 없다는데요."라고 기도하자, 천왕은 "좀 기다려 보라."고 응답했다.

그때 안방에서 마루로 나오려던 그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갑자기 꼼짝도 못 하게 되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음을 깨달은 그 할머니가, 자기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김 보살에게 애원하며 "해인을 가져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보살이 천왕께 "어떻게 해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천왕이 "할머니의 등을 십자로 두 번 두드리라."라고 공수했고, 김 보살이 할머니의 등을 두 번 두드리자 즉시 일어났다고 한다. 이윽고 그 할머니가 다락방에 잘 모시고 있던 해인을 갖고 나왔는데, 당시 해인은 다섯 가지 색깔의 깨끗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여져 모셔졌다고 한다.

그런데 김광영 보살이 해인을 갖게 된 일에 대해 1933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에 사는 김병수(金丙洙)의 앉은뱅이병을 고쳐주고 그 집에서 비전(秘傳)되던 공채(玒采)라는 도장을 얻었는데, 이것을 세계 통일의 신통력을 가진 해인(海印)이라고 선전하였다는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1992)의 보고도 있다. 당시 김 보살은 정감록 비결에서 말하는 계룡산 정씨왕도(鄭氏王都)의 개운(開運)도 절박하지만, 정씨창운(鄭氏創運)의 열쇠인 해인이 자신에게 공채(玒采)라는 실물로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김광영 보살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김용무 판사는 해방된 후 미군정시대에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었다. 김용무 판사가 당시 미군정청 책임자였던 하지 중장에게 해인의 행방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하지 중장이 일본에 있던 맥아더 사령관에게 문의했다고 한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 황궁에다 해인의 행방을 문의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리하여 김용무 판사는 대전지법의 서기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해인을 찾아, 재판 관련 문서 등과 함께 김광영 보살을 찾아와 자기의 잘못을 빌었다고 전한다. 그 후 김용무 판사는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고 한다.

해인에 얽힌 이러한 사연과 재판기록 등을 모두 읽어 본 포산 스님은 해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건에 무척 감동했다고 전한다. 포산 스님도 일찍이 수도(修道)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립될 날짜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3일 동안 심사숙고한 포산 스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십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개태사로 갔다.

포산 스님의 제자인 도일스님은 "육조(六祖) 혜능대사(慧能大師)의 동방만월세계(東方滿月世界)라는 예언에 따라, 미륵불이 한국에 오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의 종주국(宗主國)이 되며 모든 종교가 통일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도일스님은 주역(周易)에서 주장하는 지천태운시대(地天泰運時代)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고 있다.

어쨌든 당시 포산 스님의 제자들은 그를 미륵불(彌勒佛)의 화신으로 믿었으며, 개태사를 거쳐 '신도안(新都案)'으로 들어갈 것으로 믿었다고 전한다. 김광영 보살이 천왕의 지시에 따라 포산

개태사 창운각 현판

스님과 10여 명의 스님을 개태사로 모시고 온 것은, 그곳을 거쳐 신도안에 입성하여 세계 대통령이 되는 예정된 코스를 단계적으로 밟기 위한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개태사로 옮긴 포산 스님을 만났던 당시 계룡산에 있던 도주(道主)들은, 포산 스님께 경배했으며 이분이야말로 장차 세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찬탄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김광영 보살을 통해 천왕으로부터 약속받은 10년이 지나도록 포산 스님이 세계 대통령이 되지 않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실의에 빠졌다. 이후 포산 스님이 은진 미륵불로 유명한 관촉사로 거처를 옮겨 3년을 지내는 동안 제자들도 거의 모두 흩어졌고, 마침내 포산 스님은 1958년 5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김광영 보살은 그 후에도 계속 개태사에 남아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10년이 지난 1975년에야 김 보살의 아들 유진하가 개태사로 어머니를 찾아왔다. 모자가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다가, 아들 유진하가 일본으로의 재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때 김광영 보살은 천왕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며 아들을 만류했다. 특히 김광영 보살은 "천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곳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아들의 서울행을 간곡히 만류했다. 그러나 아들은 노모에게 특별히 조심해서 다녀올 터이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하며, 굳이 개태사를 떠났다. 결국 그는 개태사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차에 치여 즉사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김광영 보살이 살아있을 때 "해인이 본래 용궁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며 한강(漢江)에 던져 되돌려주었다는 전언이 있다. 그리고 김광영 보살의 딸이 해인을 가지고 사사로이 사용하다가 1997년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만일 그렇다면 김광영 보살이 가지고 있던 해인은 아직도 개태사의 어딘가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다. 야산 이달의 해인

야산(也山) 이달(李達, 1889 - 1958)은 1907년 무렵 산속에서 주역(周易) 등을 공부하여 득도했다고 믿어지며, 1946년 봄부터 충남 대둔산(大屯山) 석정암(石井庵)에서 주역과 홍범구주(洪範九疇) 등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1948년 10월에는 태극지하종교연합회(太極之下宗教聯合會)를 조직하여 종교 통합을 구상하기도 했다.

야산은 해인이 신라시대 의상(義湘) 조사께서 중국에서 화엄학(華嚴學)을 공부하다가 귀국할 때 가져온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야산의 제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해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전(口傳)이 있다.

퇴계 선생이 말년에 이르러 청량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근본을 알 수 없는 한 동자가 배움을 청하기에 3년간 가르쳐 주었다. 3년 뒤에 동자가 배움을 마치고 고하기를 "저는 동해 용왕(龍王)의 아들로서 인간계에 나와 배우게 된 것이며, 이제 때가 되어 용궁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용왕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생을 초대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용궁에서 필경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 책상 위의 도장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퇴계 선생이 쾌히 허락하고 동자의 뒤를 따르니 어느새 용궁에 도착하게 되었고, 용왕이 선생을 맞이하며 연회를 성대히 베풀었다. 주연이 무르익자 과연 용왕이 아들을 가르쳐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며, 선생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이에 퇴계 선생이 용왕의 아들에게 들은 대로 책상 위의 도장을 원하니, 용왕이 할 수 없이 도장을 내주었고, 선생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금강산 비로봉에 있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감춰 두었다.

후에 이 도장은 임진왜란 후에 사명당이 일본에 외교사절로 갈 때 사용했다고 전하며, 다녀와서는 해인사에 보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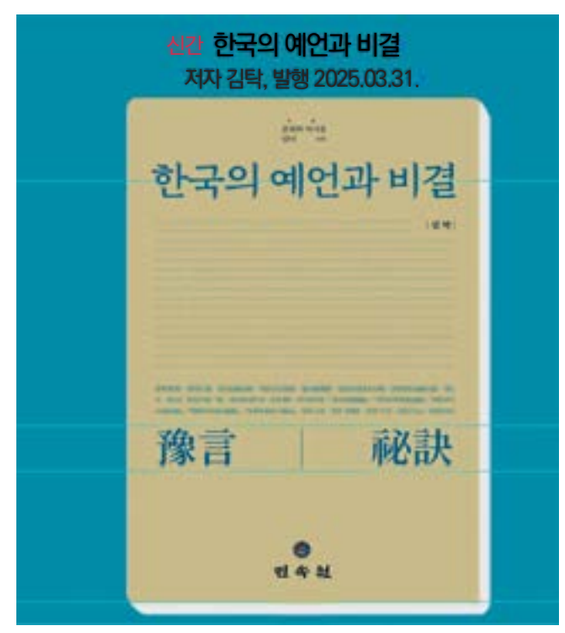
위의 이야기는 앞서 해인 설화 가운데 하나에서 살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여러 설화를 짜깁기한 형태로 보인다. 설화의 주인공이 율곡 선생이 아니라 퇴계 선생이라는 점과 금강산 비로봉에 해인을 숨겼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야산 이달

그리고 야산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대원군 시절에 정만인(鄭萬人)이라는 도인이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지를 점지해 준 대가로 해인사에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어 낸 뒤에 해인을 훔쳤다는 설과, 정만인이 해인사 주지를 자청하여 재직하면서 해인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여하튼 정만인이 해인을 손에 넣고 어디론가 달아났는데, 해남 강진에서 배를 타고 두 물길 닿는 거리에 있는 인간이 갈 수 없는 무인도인 '남조선(南朝鮮)'에 들어가서 종적을 감췄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필자 소개: 김탁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외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하시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23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선지식(善知識)이 없었고,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없었으며, 아뇩다라삼먁삼보리(無上正等正覺)가 없었다. …

한 장자(長者)가 있어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다. 장자는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겠다고 하였다. "애들아, 이 집 밖에는 세 가지 더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하나는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자, 나가서 구경하자."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불타고 있는 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것은 유명한 화택(火宅)의 비유다. 불난 집(火宅)은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항상 불타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가리킨 것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이들은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중생들을 가리킨 것이다. 장자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을 말하며 세 가지 수레는 깨달은 자의 그릇을 표현한 것이다.

양이 끄는 수레(羊車)는 성문(聲聞)을 비유한 것이며,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는 벽지불(辟支佛)을 비유한 것이다. 소가 끄는 수레(牛車)는 보살(菩薩)을 비유한 것이다.

〈법화경 비유품 제3 (法華經 譬喩品 第三)〉

若有衆生 內有智性 從佛世尊 聞法信受 약유중생 내유지성 종불세존 문법신수

만약 중생이 있어 안으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간직하며

殷勤精進 欲速出三界 自救涅槃 是名聲聞乘 은근정진 욕속출삼계 자구열반 시명성문승

은근히 정진하여 속히 삼계를 빠져나오려 하며 스스로 열반을 구하니 이를 이름하여 성문승이라 한다.

如彼諸子 爲求羊車 出於火宅 여피제자 위구양차 출어화택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양(羊)이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불이 난 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성문(聲聞)은 도(道)에 임(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若有衆生 從佛世尊 聞法信受 약유중생 종불세존 문법신수

만약 중생이 있어 부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간직하며

殷勤精進 求自然慧 樂獨善寂 深知諸法因緣 은근정진 구자연해 락독선적 심지제법인연

은근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홀로 선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안다.

是名辟支佛 如彼諸子 爲求鹿車 出於火宅 시명벽지불 여피제자 위구록차 출어화택

이를 이름하여 벽지불(辟支佛)이라 하며 이같은 사람들은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불이 난 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벽지불은 모든 법의 인연을 깨달은 자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若有衆生 從佛世尊 聞法信受 약유중생 종불세존 문법신수

만약 중생이 있어 부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간직하며

勤修精進 求一切智 佛智 自然智 無師智 如來知見 力 無所畏 근수정진 구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여래지견 력 무소외

열심히 닦아 정진하여 모든 지혜를 구하여 부처의 지혜, 자연의 지혜, 스승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 여래의 지견, 힘, 두려울 바 없음을 다 얻어

悶念安樂 無量衆生 利益天人 度脫一切 민념안락 무량중생 이익천인 도탈일체

불쌍히 여겨 수많은 중생을 편안케 해주며 하늘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며 모든 것을 해탈한다.

是名大乘菩薩 求此乘故 名爲摩訶薩 시명대승보살 구차승고 명위마하살

이를 이름하여 대승보살(大乘菩薩)이라 한다. 이처럼 대승을 구하는 고로 이름하여 마하살(摩訶薩)이 된다.

如彼諸子 爲求牛車 出於火宅 여피제자 위구우차 출어화택

이같은 사람들은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불난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대승(大乘) 보살(菩薩) 마하살(摩訶薩)의 경지와 벽지불(辟知佛)의 경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전(經典)에는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명칭들이 나온다.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며, 선지식(善知識)이며, 선근(善槿)이며, 삼사(三事)며, 삼존(三尊)이며, 불사(不死)며, 대승(大乘)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막연하게 부처님의 어떠한 경지(境地)일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이 감춰진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먼저 선근(善根)에 대한 말씀이다.

〈증일아함경 권12 삼공양품 (增壹阿含經 卷十二 三供養品)〉

世尊告阿難 有三善根 不可窮盡 세존고아난 유삼선근 불가궁진

세존께서 아난에게 고하되 세 선근(善根)이 있는데 다하여 궁함이 없다.

얼마나 선하고 선한지 끝이 없다는 말이다. 무궁무진한 세 가지 선근(善根)!

漸至涅槃界 云何爲三 점지열반계 운하위삼

점점 열반계에 이르는데 어찌하여 셋이 되는가.

所謂於如來所而種功德 此善根不可窮盡 소위어여래소이종공덕 차선근불가궁진

이른바 여래소(如來所 : 미륵여래가 계신 곳, 승리제단)에 공덕을 심으니 이 선근이 다함이 없으며,

於正法而種功德 此善根不可窮盡 어정법이종공덕 차선근불가궁진

바른 법(생미륵불의 생로병사 해탈법, 감로법문)에 공덕을 심으니 이 선근이 다함이 없으며,

於聖衆而種功德 此善根不可窮盡 어성중이종공덕 차선근불가궁진

성중(聖衆 :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 생미륵불을 만나서 성불한 자들)께 공덕을 심으니 이 선근이 다함이 없으며,

是謂 阿難 此三善根不可窮盡 得至涅槃界 시위 아난 차삼선근불가궁진 득지열반계

이에 이르되, 아난아! 세 선근은 다함이 없으니 열반계에 이르러 얻으리라.*